

전주의 중심지 변화와 견훤도성 및 궁성의 위치 추정*

조성욱**

Presumptive on Location of the Gyeonhwon Castle and Palace with Central Area Change in Jeonju*

Sungwook Cho**

요약 : 전주 지역의 중심지 변화와 후백제 시대에 축조되었던 견훤도성의 위치와 궁성의 위치 추정에 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역사적으로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 지역은 삼국(백제)시대와 후백제 시대에는 노송동의 구룡 지역,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이후에는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으로 구룡 지역과 평탄지를 교체하면서 중심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견훤도성은 기린봉과 승암산 계곡과 노송동의 구룡 지역을 포함하는 산지와 평지를 혼합한 도성으로 추정되며, 성 내부는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이었으며, 하천은 남쪽과 동쪽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흐른다. 동남북은 산지로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노송천을 해자로 이용하는 성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견훤성 내의 궁성의 위치로는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아 시가지에서 위로 보이고, 고위평탄지가 존재하며, 궁성에서는 남서방향으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인 전주 천부교회 일대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요어 : 중심지 변화, 후백제, 견훤도성, 궁성, 노송동, 전주읍성, 노송천, 고위평탄면

Abstract : The change of the central area of the Jeonju and existing studies on the presumptive of the location of Gyeonhwon Castle and Palace built during the Later Baekje period were reviewed. This study revealed as follows, First, historically, the central area in the Jeonju region is presumed to have changed as the hilly area in Nosong-dong during the Three Kingdoms (Baekje) and Later-Baekje periods, and flat area in Jeonju-walled town area after the Unified-Silla and Goryeo periods. Second, Gyeonhwon Castle is presumed to be a city that combines the valleys of Kirin-Peak and Seungam-Mountain with the hilly areas of Nosong-dong. The interior topographical condition of the castle was east high-west low and south high-north low, and the river flows from the south and east to the west and north. It is estimated that the southeast and north are bordered by mountainous areas, and the west was built with a wall using Nosong-stream as a moat. Third, the location of Place within Gyeonhwon Castl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Jeonju Cheonbu Church area, a location where you can see the city in the southwest direction, high planation surface with a relatively high altitude.

Key Words : Central area change, Later-Baekje, Gyeonhwon Castle, Palace, Nosong-dong, Jeonju walled town, Nosong-stream, High planation surface

I. 서론

전주(全州)가 역사 기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

는 통일신라시대인 672년 전주에 신라의 군사조직인 5군영 중의 하나인 완산주서(完山州誓)의 설치, 685년 지방행정기관(9주 5소경)인 완산주(完山州)가 설치되면서

*이 논문은 202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부터이다. 전주의 원래 지명은 완산(完山)이었으나, 757년(경덕왕 16년) 전주(全州)로 변경했다.

완산(전주)은 백제 멸망(660년) 이후 통일신라시대 전라북도 지역 범위의 지역중심지로 새롭게 등장한 신도시(新都市)이다. 이전 백제시대에는 당시 지방 행정단위인

5방(五方) 중의 하나인 중방(中方)이 전주 서쪽 고부(현 정읍시 고부면)에 있었고, 북쪽 논산(현 충남 논산시)에는 동방(東方)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북쪽 동방과 전주 사이의 금마 지역(현 익산시 금마면)에는, 미륵사, 오금성, 왕궁성 등 백제 무왕 시기에 조성된 왕궁 시설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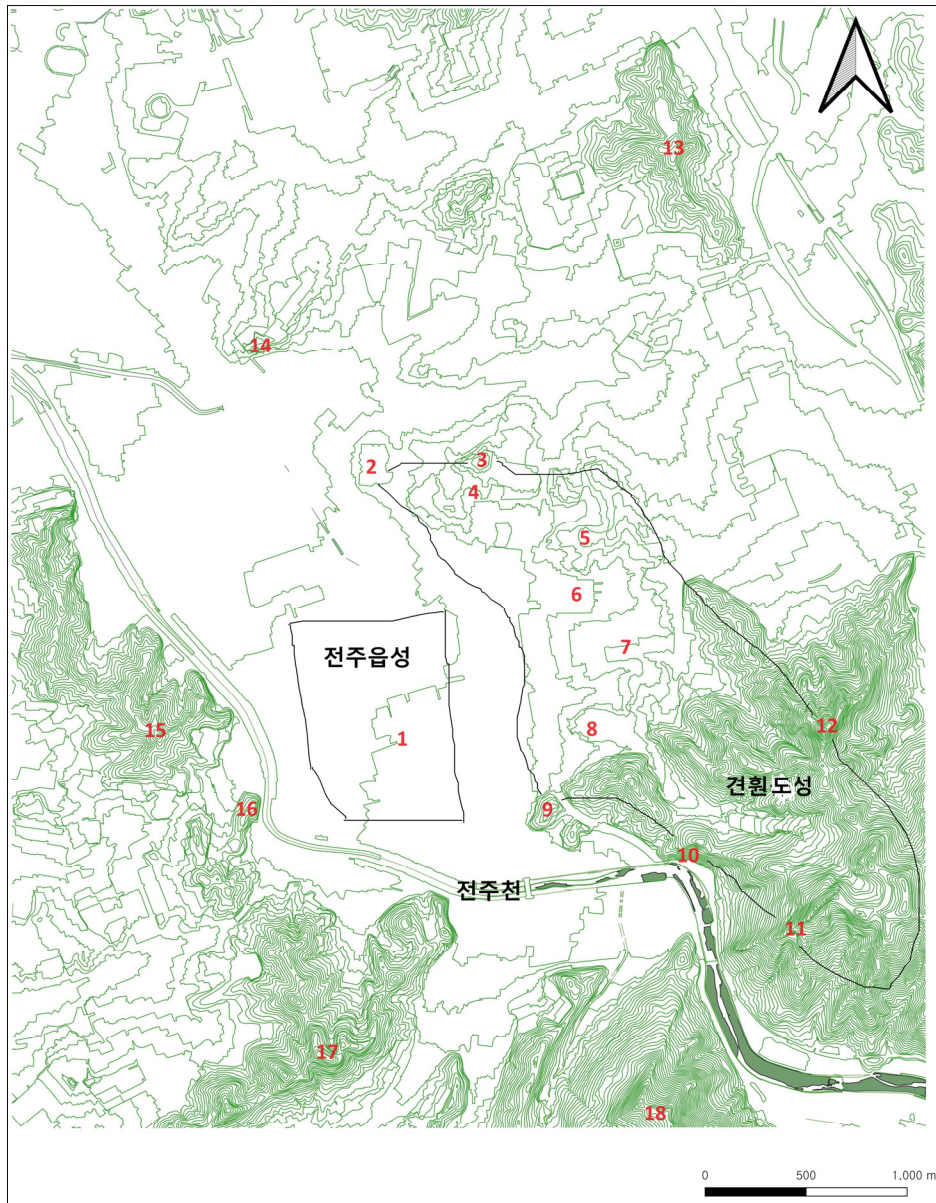


그림 1. 전주 지역의 두 성(城)과 주요 지점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 지도 내부 번호 : 1(전라감영), 2(고토성), 3(종광대), 4(물양말), 5(천부교회), 6(인봉지), 7(전주제일고), 8(천주교 전주교구청), 9(오목대), 10(한벽당), 11(승암산), 12(기린봉), 13(도당산), 14(거북바위), 15(서산), 16(다가산), 17(완산), 18(남고산).

위치해 있다. 백제시대 전주 지역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비(부여)에 수도를 둔 백제가 남쪽의 남원과 운봉 지역 그리고 대야성(현 경남 합천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주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에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수도인 사비(538~660)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방(논산 지역)을 거쳐 평야 지역에서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위치하는 전주의 승암산과 남고산 사이의 협곡(좁은목, 노루목)을 통과해야 남원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685년 이후 지방의 행정 중심지(완산주)로 성장했던 전주에서 가장 큰 변환점은 900년 견훤이 전주로 수도를 이전하고 ‘백제(후백제)’를 선포하면서 부터이다. 이 때 전주는 전라북도 지역 범위의 지방행정 중심지에서 후백제의 수도가 되었다. 후백제의 수도가 되면서 도성(都城)과 궁성(宮城)이 축조되었으나,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폐허화 되었고, 전주 내부에서의 중심 지역도 변화했다.

조선시대까지 후백제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으나, ‘완산지(完山誌)’(1905), ‘후백제강역고’(津田左右吉, 1913), ‘전주부사(全州府史)’(1943)가 관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최흥선, 2016:77).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허인옥, 2021). 그러나 후백제사에 대한 문헌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 발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견훤도성의 위치로는 전주 동부 구릉지(해발고도 약 60m)에 해당하는 노송동 지역과 승암산 산지, 서부 평탄지(해발고도 약 40m)인 중앙동과 풍남동 지역, 그리고 이 두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 등 3가지의 견해가 있다. 그리고 견훤도성 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궁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동고산성의 상성(上城), 물왕명 일대, 전주제일고 일대, 인봉지 일대, 전주 풍남초 일대, 천주교 전주교구청 일대 등 6개 지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900년에서 936년까지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 지역에 존재했던 견훤도성과 궁성의 위치를 지역 내의 중심지 이동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주 지역 내에서의 중심지 변화를 통일신라시대 9주 5소경(685년)의 하나였던 지방행정 중심지였던 완산주시기, 900년 후백제의 수도로서 도성과 궁성의 축조 시

기, 고려시대인 1018년 전복의 범위를 넘어 전라도의 중심지가 된 시기 등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전주 지역 내에서의 중심지 변화를 중심으로 견훤도성의 위치에 관한 기존 논의를 재검토하고, 견훤성 내에 위치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궁성의 위치를 새롭게 추정해 보고자 한다(그림 1).

II. 전주 지역 내부에서의 중심지 변화

1. 통일신라 시대(672년~900년) - 완산주(전주)

전주 지역이 역사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이다. 백제시대 전복 지역의 중심지는 백제 5방(五方) 중 중방(中方)에 해당하는 고부성(고사부리성, 현재 정읍시 고부면)이었다. 그리고 백제 무왕(600~641) 때에는 익산미륵사지 석탑과 왕궁성 등 금마 지역(현재 익산시 금마면과 왕궁면)으로 백제의 도읍지를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전주 지역이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는 신라가 백제 지역을 통일하고, 지역의 중심지를 고부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시작되었다. 660년 백제의 멸망과 663년 백제부흥운동 그리고 668년 고구려를 통일한 신라는 672년 군사시설로 5군영(軍營)을 설치했는데, 이 중 전주 지역에 완산주서(完山州署)를 설치했다(5주서: 청주서, 한산주서, 우수주서, 하서주서, 완산주서)(최범호, 2016). 676년 당나라를 축출한 신라는 685년(9주 5소경) 전주에 지방행정기관인 완산주(完山州)를 설치하면서, 전주는 고부를 대신하여 전복 지역 범위의 군사와 행정중심지로 성장하였다(그림 2).

통일신라시대의 지방행정제도인 9주(州) 5소경(小京)(685년) 중, 전복 지역에는 전주에 완산주, 남원에는 남원경이 설치되었으며, 지방 정예군인 십정(十停)은 거사물정(居斯勿停, 현재 임실군 지사면)에 배치되었다.

전주 지역의 지명은 원래 완산(完山)이었으나, 757년(경덕왕 16년) 완(完)자를 같은 의미(온전하다)의 전(全)자로 변환하고, 9주의 주(州)자가 추가되어, 완산(完山)에서 전주(全州)로 변화했다. 900년 후백제의 견훤도성 시기에는 전주라는 지명으로 불리던 시기였으며, 현재도 완산이라는 지명은 전주 남부의 완산칠봉(장군봉, 185m)이라는 산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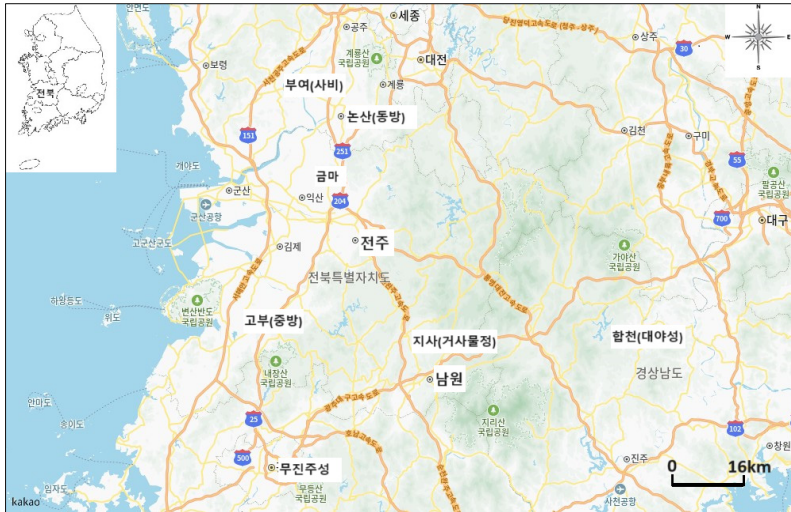


그림 2 통일신라시대 전주 주변 지역의 주요 지점(Kakaomap)

685년 완산주가 설치되면서 지역 내에서 행정 중심지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장명수(1994:23)는 기린봉 아래 구릉지(노송동 일대)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곳에 군대의 주둔과 행정관료가 생활할 정도의 성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경찬(2004)과 김주성(2014)은 통일신라시대 시기에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리구획(坊里區劃)을 근거로 구릉지에서 평탄지 지역인 전주읍성 지역으로 행정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경찬(2004)은 1912년에 작성된 전주의 지적원도를 분석하여, 전주에서 관찰되는 방리구획(坊里區劃)의 형태적 특성을 2가지, 즉 주향이 정북방향이 아니라 북서방향이라는 점과 남북중심축인 절반구역(半區)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전주 지역의 방리구획이 정북방향이 아닌 북서 방향으로 격자형 토지구획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초기 토지구획의 시행 동기가 시가구획(市街區劃)이 아니라 전지구획(田地區劃)의 관점에서 시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가구획을 목적으로 시행된 고대 격자형 토지구획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직교하는 방리구획이 설정되는데, 전주의 경우 정북방향이 아니라 북서방향으로 편향된 점은 시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가구획이 아니라 새로운 경작지에서 이루어지는 전지구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로 전지구획은 군사적 목적(둔전)이나 새로운 경작지 개척 때에 이루어진다. 즉, 통

일신라시대 초기 신도시로 성장한 전주에서 둔전지나 신개척지로서 토지구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지역 성장과 함께 전지구획이 시가구획으로 전이되면서, 전지구획과 시가구획이 중첩되는 형태적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전주의 방리구획은 가운데의 절반구역(半區)인 남북중심축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앙남북축을 중심으로 좌측(서쪽, 전주천 방향 평지)은 동서 150m X 남북 155m, 우측(동쪽, 노송동 방향 구릉지)은 동서 140m X 남북 155m로, 동서의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좌측(서쪽)은 주향이 북북서(18°)로 균질한데 비하여, 우측(동쪽)은 주향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9°, 13°). 이경찬(2004)은 그 이유를 서로 다른 시기에 시행된 토지구획 구역이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과 전주가 군사거점에서 행정중심지로의 전이과정을 통해 전지구획에서 시가구획으로 변화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전주 지역에서 방리구획이 실시된 시기를 통일신라시기로 본다면 900년 전후에 전주에 후백제의 도읍을 정할 당시에, 이미 평탄지에 전주(全州)의 치소(治所)를 중심으로 행정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이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소는 동쪽 노송동의 구릉 지역을 배후로 하고, 앞쪽인 서쪽에 전주천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배치 등의 주향은 서향(西向)이 자연스럽다. 또한 평탄지에 치소가 위치했다면 현재 전

주읍성 지역인 평탄지가 전주천의 범람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전주의 행정중심 기능인 치소(治所)가 위치했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구릉 지역인 노송동 지역과 평탄지역인 중앙동(풍남동) 지역인데, 통일신라 초기에는 구릉지인 노송동 지역에 위치했었다가,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규모의 확장에 따라 평지인 중앙동(풍남동)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 후백제 시대(900년~936년) - 후백제의 수도

견훤(甄萱 또는 진훤, 867~936)은 889년(진성여왕 3년)에 발생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진압하면서 성장하여, 892년 무진주(武珍州, 현 광주광역시)에서 거병하였다(삼국유사, 권제2, '후백제 견훤'). 그리고 900년에는 전주로 도읍을 이전하여 백제(百濟)를 세우고, 정개(正開)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삼국사기, 권제50, '견훤'). 후백제는 900년부터 936년까지 37년간 전주를 도읍으로 했던 후삼국 중 한 때 가장 강성했던 국가였다(최흥선, 2016:76).

견훤이 독자세력을 선포했던 무진주성(武珍州城)은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산 136번지 일대) 무등산에 위치하는 통일신라시대의 토성으로, 7세기 후반 무진주가 설치된 후, 8세기 말 ~ 9세기 초에 축조되어 통일신라시대 말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최영주, 2021; 변동

명 등, 2023). 광주(현 광주광역시)는 685년(신문왕 5년) 9주의 하나인 무주(武州)였는데, 983년(고려 성종 2년) 12목(十二牧)을 설치할 때, 나주목(羅州牧)이 설치되면서 지역 중심지의 역할이 쇠퇴하였다. 그리고 고려말에 축성된 광주읍성(光州邑城)은 현재 광주 원도심인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동구)에 위치했었는데, 방리제에 따른 격자형 도로망의 흔적이 남아 있다(이경찬, 2004). 무진주성의 둘레는 6,771m(2,560보), 광주읍성은 2,500m(972보) 정도로 무진주성의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임영진, 2008; 김주성, 2014).

통일신라시대 9주(685년)의 하나였던 전주의 행정중심지의 위치와 견훤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즉, 통일신라시대의 행정중심지가 노송동의 구릉지역에 위치했었을 가능성(전영래, 1992; 장명수, 1994)과 현재의 전라감영지(이경찬, 2004; 김주성, 2014; 광장근, 2015; 최흥선, 2016)에 있었을 가능성에 관한 논의이다. 900년 견훤이 수도를 전주로 이전할 당시 통일신라시대 지방행정 중심지로서 전주읍성의 평지 부분이 대부분 시가지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도성을 노송동에 축조했을 것이라는 추정(광장근, 2015:23)과 백제시대에 노송동 구릉지에 시가지와 거주 구역이 있다가 통일신라시대 이후 평탄지가 행정중심지로 성장했다는 추정(이경찬, 2004:71) 등이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에 평탄지(전라감영)에 격자형 토지구획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통일신라 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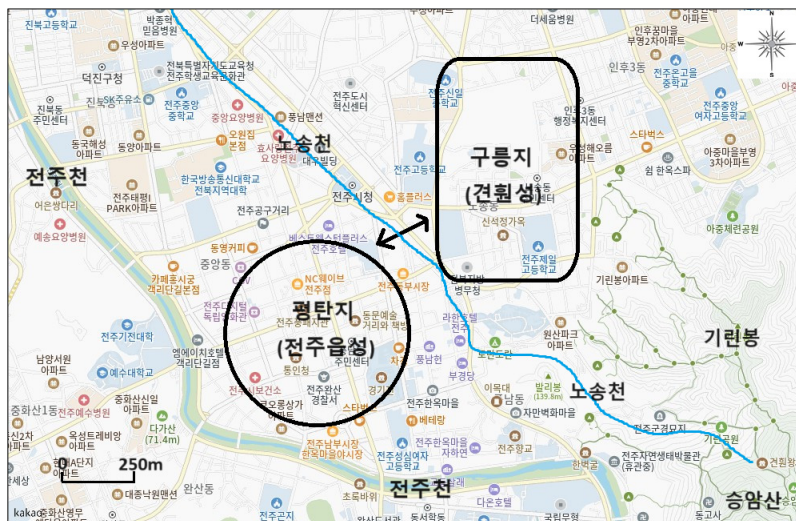


그림 3. 전주 지역 내부에서 중심지 변화(Kakaomaps)

표 1. 전주 지역의 시대별 중심 지역 변화

시대별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후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중심지역	구룡지	평탄지	구룡지	평탄지	

* 구룡지(노송동 지역), 평탄지(중앙동+풍남동 지역).

주요 거주지는 노송동의 구룡지역이었고, 평탄지의 경작지를 둔전이나 신개척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구획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이경찬, 2004:67). 그리고 900년 건원이 전주를 수도로 정했을 당시에는 평탄지에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적고 방어상 유리한 동부 노송동의 구룡 지역에 궁성과 성곽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주의 중심지는 노송동의 구룡지(백제시대)에서 평탄지(통일신라시대)로, 후백제 시대에 다시 구룡지로 이동했고, 후백제 멸망 이후에는 다시 평탄지로 이동하는 반복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3)(표 1).

3. 고려 시대(936년~1392년) - 전라도의 주치(州治)

936년 전주에 도읍을 했던 후백제가 멸망하고, 983년(성종 2년) 고려는 전주를 12목의 하나로 설정(양주·해주·광주[廣州]·충주·청주·공주·진주·상주·전주·나주·승주·황주)하였고, 1018년(고려 현종) 행정구역 개편에서는 지방행정 제도였던 10도(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강남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 중에서 현재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강남도(江南道)와 전라남도에 해당하는 해양도(海陽道)를 합한 전라도(全羅道)의 행정 중심지인 전라주도(全羅州道)가 되었다. 1018년부터 1886년 13도제의 실시로 전라남북도가 분리될 때까지, 고려와 조선을 거쳐 868년간 전주는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다(표 2).

고려시대 때인 1237년(고려 고종) 몽고군이 전주와 고부의 경계까지 침입했고, 1253년(고종)에는 몽고기병 300여기가 전주의 반석역을 습격했다. 그리고 1377년

에는 왜구가 전주를 함락하였으나 반격하여 물리쳤고, 1378년에는 왜구에 의해서 전주가 불태워지기도 했다(장명수, 1994:35).

1380년 9월 운봉에서 황산대첩을 거둔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주 이씨의 종친이 거주하는 전주의 자만동(또는 옥류동)을 방문하여 오목대에서 승전 축하 연회를 베풀었다. 이 시점은 왜구에 의해서 전주가 불탄(1378년) 2년 후이며, 이때 동행했던 정몽주는 남고산의 만경대에 올라 글을 남겼다. 오목대가 위치하는 자만동은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李翰) 이후 목조 시기까지 살았으나,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가 관원과의 불화로 강원도 삼척과 함경도로 이사하게 되었다. 현재 자만동에는 ‘목조대 왕구거유지(穆祖大王舊居遺址)’라는 제액이 있다(1900년 설치).

1388년 이전에 전주에 성이 존재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장명수(1994)와 이경찬(2004)은 전주읍성보다는 규모가 작은 성이 존재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장명수(1994:35)는 1182년 전주에서 일어난 기두·죽동(旗頭·竹洞)의 난 때에 반란군이 40여일 동안 성을 굳게 닫고 저항했다는 기록과 1377년(고려 우왕)에 왜구가 전주를 침공하여 성을 빼앗겼으나 병마사 유실이 이를 막아 왜구가 귀신사로 퇴각했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1388년 최유경이 전주읍성을 축성하기 이전에 이미 전주에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장명수, 1994:35)(표 3).

전주 출신이었던 최유경(崔有慶)이 전라감사로 부임한 것은 1388년~1389년(고려)이었고, 이때 전주부성이 축조되었다. 전주는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라북도 지역 범위의 군사 및 행정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1018년에는 전라남북도를 통합한 전라도의 행정중심

표 2. 시대별 전주의 관할 범위 변화

시대별	통일신라시대	후백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연 도	676-900	900-936	936-1392	1392-1886
전주의 관할 범위	완산주(전주) (전북)	후백제의 수도 (전라도+충청도)	983년 12목(전북) 1018년 전라도(전남북)	전라도 (왕실본향)

표 3. 1182년 기두·죽동의 난과 1378년 왜구에 의한 파괴 내용

1182년(고려 명종 12) 기두·죽동의 난(『고려사절요』 권12).

원문 : [全州旗頭竹同等, 作亂, --- 發道內兵討之, 賊, 閉城固守.]

해석 : 전주(全州)의 기두(旗頭) 죽동(竹同) 등이 난을 일으켰다. -- 도내의 군병을 동원하여 토벌하니, 적들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1378년(우왕 4년 10월) 왜구에 의한 전주 화재(『고려사절요』 권30).

원문 : [冬十月, 倭寇林州, 又屠燒全州.]

해석 : 겨울 10월에 왜적이 임주(林州)를 침범하고, 또 **전주를 도륙하고 불태웠다.**

지로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주 지역 내부에서 중심 지역의 변동과 전주 지역의 지리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전주의 중심 지역은 평지인 전주읍성 지역이었다.

III. 견훤도성(甄萱都城)의 위치 추정

1. 견훤성의 위치에 관한 기존 논의

전주 지역에서 중심지는 백제시대 이전에는 완산의 북쪽과 전주천 사이 지역인 오송리와 곤지리(현 완산초등학교) 지역과 전주이씨의 발상지인 오목대와 한벽당(루) 사이의 자만동(또는 옥류동) 지역, 백제시대에는 견훤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구릉 지역인 노송동 지역, 통

일신라시대 때는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 그리고 후백제 시기(900-936)에는 노송동 지역, 936년 후백제 멸망 이후에는 다시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중앙동, 풍남동)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685년 이후 전주는 전라북도 지역 범위의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215년 후인 900년 견훤이 후백제의 수도로 정했을 때는 행정시설이 이미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성곽이 있었는가는 불확실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견훤도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전주시 노송동 일대의 구릉지와 승암산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1)와 평지인 중앙동과 풍남동 일대 등 전주읍성 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2), 그리고 두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3) 등의 3가지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흥선, 2016:78)(그림 4)(표 4).

먼저 노송동 일대의 구릉지와 승암산 산지의 복합성의



그림 4. 견훤성 추정 지역

출처 : 조성욱, 2025:205.

표 4. 견훤성 추정 지역에 대한 기존 논의

연구자 (추정지역)	연도	추정 지역 논거
전주부사 (1)	1943	- 반월형의 도성으로 평지와 산성이 복합된 도성체제 - 견훤성은 남동쪽의 동고산성에서 기린봉, 북서방향의 마당재-솔때백이, 서쪽의 서낭당이-반대산(고토성)-계사공장, 남서쪽의 승암산-발리산-오목대-천주교 전주교구청-시청(구 전주역)-전주고 뒤 능선 범위 - 노송동 일대의 평지성과 동고산성에서 승암산과 서쪽으로 노루목을 지나 남고산성에 이르는 2개의 산성을 연계하는 구도 - 고토성(古土城)도 도성의 일부
전영래 (1)	1992	- 남고산성은 분리, 고토성을 도성에 포함시킴, 오목대에서 이목대로 연장되는 성벽을 제외하고, 서쪽으로 연결되는 성벽을 새롭게 제시 - 동고산성을 궁성(상성), 서북방향으로 열린 동고산성 골짜기를 내성과 중성, 노송동 일대의 평지를 외성으로 봄 - 중성과 내성 사이에는 원래 성벽이 설치되었으나, 영조대에 전주읍성을 수축하면서 성들로 재 활용
장명수 (1)	1994	- 도성은 기존 삶의 터전 재 활용, 평지성과 산성으로 구성
성정용 (1)	2000	- 내성과 중성을 부정하고, 고토성 일대를 궁성으로 제시 - 동고산성은 방어성, 구릉 일대에 외성 존재 가능성 - 황방 산성, 구역리 산성, 남고 산성을 연결하는 방어체계 설정
조법종 (1)	2003	- 도성과 궁성이 같은 공간적 범위에 존재 - 기린(기린봉)-봉황(봉황암)-용(용머리고개)-거북(거북바위)의 체계 - 도성은 승암산의 동고산성부터 중노송동 일대
김두규·정기호 (1)	2004	- 풍수사상을 바탕으로 후백제 도성 규모 추정 - 기린봉이 주산, 궁성의 위치는 현 전주제일고등학교 지역 추정
이경찬 (1)	2004	- 견훤도성은 삼국시대~통일신라 초기에 이미 축조되어 있던 고토성과 동고산성을 개축 및 증축하는 형태로 도성을 정비한 것 - 지적도에서 관찰되는 전라감영지 내 타원형의 라인은 고려시대 성과 관련이 있음 - 중앙구획 구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주향이 다른 방리구획 존재
김주성 (2)	2014	- 이경찬(2004)의 방리구획 연구에서 주향이 다른 지역에 주목 - 전주천은 서천(西遷)한 적이 없으며, 전라감영지와 전주 구도심에서 출토된 ‘官’자명 기와, 사자문전 돌 등으로 후백제 도성은 전주천변의 평탄지대인 전주부성 일대일 가능성 제시
유병하·나병호 (1)	2015	- 1917~1923년 지적도, 1938년 지형도, 1948년과 1954년 항공사진, 1965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후백제 도성과 궁성을 비정 - 토축을 기본으로 한 성벽, 기존 산성과 토성의 재 활용, 하천과 자연지세, 산성을 포함한 다중의 방어체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궁예도성과 유사(도성 구조, 방어체계, 성벽, 문지, 궁성 등)
곽장근 (1)	2015	- 궁성을 인봉리 일대로 추정 - 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뒤쪽의 토축물을 궁성의 서벽으로 제시
최홍선 (3)	2021	- 견훤성의 범위를 노송동과 전주읍성 지역을 포함하는 더 큰 지역적 범위로 추정(전주천 너머의 완산, 서산 포함) - 부여의 사비성이 부소산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 견훤성이 반드시 노송동 구릉지역에 만 위치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전주천을 자연해자로 이용했을 가능성, 고토성과 오목대, 고토성, 동고산성은 전주 시가지를 보호하는 구조물이었을 가능성
이경찬 (1)	2024	- 동쪽 구릉지 구역에 성곽, 서쪽 평지 구역에 성곽이 없는 시가지 구역 - 왕궁 : 반대산 동정리 구역, 풍납초등학교 구역

* 추정지역 : (1. 노송동 구릉지와 산지), (2. 중앙동과 풍남동의 평지), (3. 두 지역 모두 포함).

로 추정하는 연구는 1943년에 발행된 「전주부사」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전영래(1992), 장명수(1994), 성경용(2000), 조법중(2003), 김두규·정기호(2004), 이경찬(2004), 유병하·나병호(2015), 광장근(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전주부사(1943)」에서는 견훤성을 반월형의 평지와 산성이 혼합된 복합 도성체계로 추정하고, 성곽은 동고산성-기린봉(남동쪽), 마당재-술때백이(북서쪽), 서낭대이-반대산(盤垸山)-고토성-제사공장(서쪽), 남서쪽으로는 승암산-발리산-오목대-천주교 전주교구청-시청(구 전주역)-반대산 능선으로 연결되는 반월형의 도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송동 일대로 추정하는 근거는 후백제 도성에 관한 기록(「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토성 위치 기록, 「전주성황사증건기」의 옛 궁터 기록, 「전주부사」의 기록), 「완산지」에 좌동향서(坐東向西)라고 기록된 점, 전주천의 서천(西遷) 가정, 현재 남아 있는 도성의 외곽 성벽 선 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견훤성을 평지인 전주읍성 지역(중앙동과 풍납동)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에서는(김주성, 2014; 최홍선, 2016), 견훤도성이 전주천의 서천과는 관련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동고산성에서 발견된 ‘관(官)’자명의 기와가 경기전의 발굴에서도 발견되었고(김주성, 2014:89), 1912년도 지적도 연구(이경찬, 2004)에 나타나는 전주의 격자형 도시구조 중에서 물왕벌 일대의 방리구획이 다른 점, 전라감영 선화당 발굴에서 나온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와 배수로, 구 도립병원 자리에서 발견된 쌍사자무늬의 전(磚), 통일신라의 9주 5소경 도시에서 찾아지는 도시구획을 논거로 들고 있다(김주성, 2014:94). 즉, 전주의 지적도에서 중심을 경계로 동쪽 지역이 방리구획과 주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좌측(서쪽, 전주천 방향)의 방리구획은 통일신라시대에, 그리고 동쪽 물왕벌 일대(구릉지)는 그 이후 견훤군의 주둔지로 후백제 때 새로 편입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견훤성을 고토성이나 동고산성 등 구릉지나 승암산의 산지가 아닌 평지인 전주읍성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홍선(2021)은 견훤성의 범위를 구릉지인 노송동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큰 지역적 범위로, 서쪽으로 전주천을 넘어 서산과 어은산, 남쪽으로 완산의 옥녀봉(나말여초의 기와편과 석재 발굴) 등에 장대를 설치하여 전주천 너머의 산줄기를 따라 방어망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토성을 사비도성의 나성, 평양성의 외성, 일본 다이자후 세이쇼의 수성(664년)과 같이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전주도성의 외곽성으로 상정하고 있다. 서울의 몽촌토성(풍납토성)이나 공주의 공산성에 서는 성 안에 궁성이 위치하는 반면 백제의 사비성은 부소산성 밖에 위치하고, 사비성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보아 견훤성이 반드시 노송동 구릉 지역 내에만 위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즉, 견훤성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여 노송동의 구릉지와 중앙동의 평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해석하고, 그 서쪽에 위치하는 전주천을 해자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견훤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노송동의 구릉지대와 승암산의 산지 지역, 전주읍성의 평지 지역, 구릉지역과 산지 그리고 평지를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라는 3가지 견해가 있다.

2. 견훤성의 위치 관련 요인 검토

견훤성을 구릉지와 산지의 복합성으로 추정할 때의 지역 범위는 승암산-기린봉-마당재-서낭대이-동초등학교 북쪽(종광대)-전주고등학교-풍납초교-오목대-발리산-승암산의 범위이다(전주부사, 1943). 그러나 고토성(북)과 오목대(남)가 독자적인 방어시설인지 아니면 단순 성벽인지, 동고산성과 함께 전주천 넘어 남고산성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고토성에서 서쪽으로 제사공장(현 동양아파트)에 이르는 두 갈래의 성벽(長堤)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최홍선, 2016:79; 조성욱, 2025).

조선시대 관찰사였던 조현명(趙顯命, 1690~1752)의 시에 ‘전주부성이 견훤성을 마주보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전주부성과 견훤성은 별도의 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견훤도성의 서쪽과 전주읍성의 동북쪽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100m 이내이다. 견훤성은 평양성, 금성, 사비성과 같이 반월성으로 추정되고, 노송동 일대의 외성 지역에 왕궁, 관아, 취락이 입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승암산 골짜기(중성, 내성, 상성, 해발 236m~306m 사이)에 내부 성벽이 있는, 도성과 산성을 포용하는 시가지 포위식(사비성과 같이)의 성으로 추정된다(장명수, 1994:31). 또한 견훤도성의 산지 쪽에 위치하는 동고산성(東固山城)은 승암산(僧巖山)을 에워싸고 있는 포곡식 산성으로 둘레 1,574m, 동서 길이 314m, 남북 길이 256m이다(김영태, 2010). 동고산성은 지형상 평지가 적고 성 내부가 좁아 궁성보다는 배후산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김영태, 2010).

개경성을 포함한 고려도성(강화성, 진도 용장산성, 제주 향파두리성)의 특징은 산지에 둘러싸인 분지에 입지하고, 분지 내부에서의 고도차이에 따라 계단상으로 평탄지를 조성하여 내부공간이 분할된 구조라는 점, 구릉의 경사면을 따라 비대칭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 내성, 중성, 외성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임영진, 2012:263). 이러한 모습은 평탄지에 조성되어 규칙적인 도로망과 대칭적인 건물배치 형태를 보여주는 통일신라 시대 9주 5소경의 도시구조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개경성은 해발 50m의 작은 봉우리를 둘러싼 토성으로 궁성을 축조하고, 궁성을 둘러싼 황성, 외성(나성, 1029년)을 완성한 모습이다(내성은 고려말에 추가됨)(임영진, 2012:261). 견훤성은 평지가 아닌 구릉 및 산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조성된 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경성과 유사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성내의 상부 평탄면에 궁성(상성)을 축조하고, 이 궁성을 에워싸는 황궁, 그리고 중요관공서가 포함되는 내성, 전체 시가지 지역을 둘러싸는 외성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실시된 전주 방리구획의 특징은 전주천에 가까운 평탄지의 서쪽 지역은 규칙적으로 구획이 되고, 동부의 구릉지 지역에서는 주향과 구획선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이경찬, 2004). 이것은 방리구획 당시에 이미 전주천과 가까운 서부 지역은 전주천의 홍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전주천의 유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즉, 통일신라시대 이후 전주천은 현재의 유로와 크게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조성욱, 2025).

즉, 900년 견훤성이 축조될 당시 전주천은 이미 유로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견훤성의 서부 성벽을 이루는 고토성-전주시청 동쪽-노송정 90-2번지 토축물-오목대 선은 전주천보다는 오히려 내부 하천인 노송천의 흐름과 일치한다. 즉, 노송천을 중심으로 동부의 구릉지대(노송동)와 서부의 평탄지(전주읍성)로 구분이 되며, 노송천 동부에 견훤성의 서쪽 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전주부성과 견훤성의 축조에서 전주천보다는 지류인 노송천(서쪽)과 모래내(건산천, 북쪽)가 견훤성의 해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견훤성은 기린봉 산줄기로 동쪽의 경계를 삼고, 서쪽은 노송천으로 경계를 하며, 북쪽은 반대(태)산과 모래내, 남쪽은 기린봉과 승암산으로 경계를 이루어, 성 내에서

의 도시구조는 지형 조건에 따라 전체적으로 서향(西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토성(古土城)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인 ‘동국여지승람’(1482년)에서는 고토성이 면(面)이 아니고 선(線)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주도성의 외곽 토성으로 추정하기도 하고(최홍선, 2021:177), 고토성을 동서 700m, 남북 360m, 둘레 2km의 면(面)으로 추정하기도 했다(전영래, 1980). 또한 전주 견훤성은 평양성이나 사비성과 같이 배후산성, 통치시설, 방리구획이 된 시가지로 구성되었으며(3개 지역), 통일신라시대의 주치(州治)는 고토성과 통치시설(행정) 사이에 있었으며,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에 따라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도성 배치에 따른 시설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최홍선, 2021:176).

고토성에서 가타쿠라(片倉) 제사공장(현 동양아파트)과 전매국 상생부지(현 태평동) 북변까지 이어지는 두 줄기의 성벽(전주부사, 1943:974)이 나성으로 견훤성의 일부였는지, 견훤성의 익성(翼城)인지, 견훤성과 관련이 없이 북쪽의 허한 기를 막기 위한 이후 풍수지리에 의한 이후의 축조물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병하·나병호(2015)는 이 일지상의 토축물을 견훤성의 도성체계가 아니라, 방어체계 상에서 반대산-고토성-서쪽의 서산(109.2m, 진복사)을 잇는 추가성벽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승암산과 기린봉에서 발원하여 견훤성의 내부를 흘렀던 노송천과 인봉천 그리고 성 밖에서 북부를 흘렀던 모래내가 만나는 지점에 금암동의 점암바위와 거북바위가 위치해 있다. 견훤시대에 생각했던 전주의 지리적 범위는 북쪽으로는 모래내까지의 범위일 가능성이 있고, 이 장제(長堤)는 전주지역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견훤성의 반월형 외곽 성벽 선은 대부분 자연 지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인공적인 토축물로 보이는 곳은 노송정 90-2번지 토축물(전주부사, 1943; 현재 천주교 전주교구청 남쪽), 2개의 일자(一字) 성벽, 전주시청(구 전주역) 앞의 토축물, 오목대 성벽(국립전주박물관, 2016), 그리고 전주 동초등학교와 종광대(78.9m, 반대산) 북쪽 토성(전라일보, 2025.2.20.)은 모두 노송천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는 지점들이다.

노송동에 견훤성과 왕궁이 위치했을 경우 지형적으로 기린봉 줄기로 이루어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서향으로 건물의 방향이 배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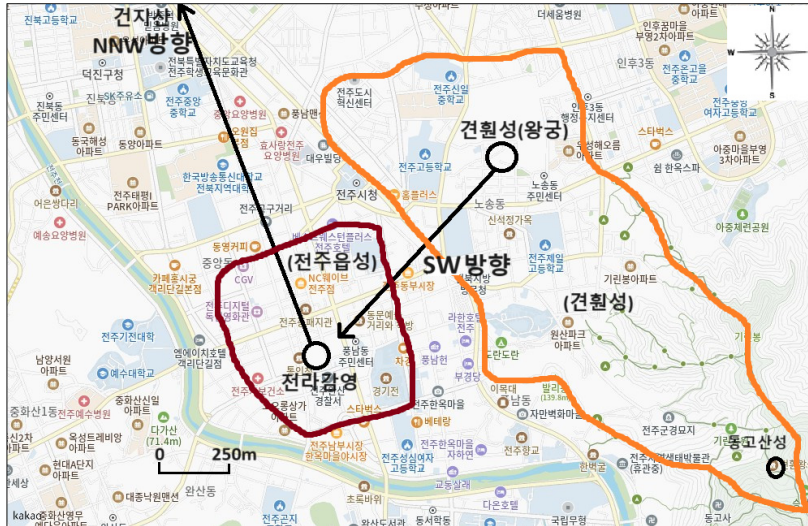


그림 5. 견훤궁성과 전주읍성에서의 주향(Kakaomap)

린봉이나 승암산을 주산(主山)으로 상정할 때는 북서향이 되고, 건지산을 주산으로 상정했을 때는 남향이 된다. 주향이 서향에서 남향으로 전환되는 것과 건지산을 주산으로 하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말에 축성된 전주부성은 남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뀌었나 하는 점인데, 고려시대 일 가능성이 높다.

건지산에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의 묘소인 조경단(1899년)이 조성되고 신성시했지만, 이미 1388년 고려말에 남문을 정문으로 하는 전주읍성이 축조된 것을 보면 조선왕조에 의해서 건지산이 주산으로 전환되었다기 보다는 그 이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5).

동고산성의 상성(上城)은 승암산 계곡 상부에 위치해 있으며, 성황사는 상성의 아래에 위치해 있다(전영래, 1992). 기린봉(麒麟峰, 271m)과 승암산(僧巖山, 306m)으로 이루어진 기린산체(麒麟山體)의 가장 핵심적인 계곡은 승암산 북서쪽 계곡이며, 이곳에서 노송천이 발원한다. 승암산은 기린봉보다 해발고도가 높고, 정상부가 규암으로 이루어져 전주부성의 위치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띈다. 즉, 건지산(乾止山)과 기린봉(麒麟峰)은 실제의 모습보다는 관념적인 사상에 의해서 명명(命名)과 위상이 정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승암산(僧巖山)은 불교와 관련된 산명이어서 특히 조선시대에 의도적으로 무시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주읍성의 크기에 대해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에서는 1,280보,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는 2,680보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세종실록지리지의 둘레를 고려읍성으로 비정하고, 문헌비고의 둘레를 조선후기의 읍성으로 비정하는 의견도 있다(이경찬, 2004; 김주성, 2014:100). 이경찬(2004)은 고려시대에 작은 성이 존재하다가, 1388년 최유경에 의해 확장 개축되고, 1410년 경기전을 만들면서 한 번 더 확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734년 조현명의 전주성 수축시에 2,249보에서 369보가 증가한 2,618보로 기록된 것을 보면(조현명, 1734; 유재춘, 2006),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문헌비고의 내용 차이는 실제 사실보다는 기록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광주읍성이 972보인데 비하여, 무진주성은 2,560보로 훨씬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지와 구릉지에 구축된 견훤도성이 평지에 구축된 전주읍성보다는 규모가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주성, 2014:101).

이상과 같이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지 이동과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견훤성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지방행정 중심지는 전주읍성의 평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후백제 시대에 축조된 견훤도성은 노송동의 구릉지대와 승암산의 산지를 포함하는 복합성 형태의 반월성으로 추정된다. 즉, 견훤성은 전주천이 아닌 노송천 서쪽 구릉지와 산지를 포괄하는 반월형 성곽이었고, 고려시대 이후에 중심 지역이 평지로 이동하고 전주천까지 거주지가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IV. 견훤 궁성(宮城)의 위치 추정

1. 궁성 추정 지점에 대한 기존 논의

견훤성의 궁성 위치에 대해서는 물왕벌 일대, 동고산성(상성), 전주 제일고 일대, 인봉지 일대, 천주교 전주교구청 일대, 풍남초등학교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은 물왕벌과 동고산성의 상성인데, 물왕벌 지역은 노송동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동고산성은 승암산 정상부 아래 산지에 위치한다는 지형상의 차이점이 있다.

기존에 거론된 지점들을 검토해 보면, 먼저 전주 동초등학교와 전주고등학교 사이의 물왕벌 지역을 궁성으로 보는 입장으로는 전주부사(1943), 장명수(1994), 성경용(2000), 이경찬(2024) 등이 있다. 「전주부사(1943)」에서는 왕궁의 주산을 건지산으로 하여 남향으로 배치된 형태를 가정하고, 사신사상(四神思想)을 바탕으로 우백호 부분을 인공적 성벽(장제)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토성(古土城)에 주목하고, 현재 전주시청 동편 ~ 반대산 구릉지 사이 즉, 현재 전주시청 동쪽과 고산길 및 동정리의 중간지역인 물왕벌을 후백제 견훤 왕궁으로 비정하고 있다(전주부사, 1943:973). 장명수(1994:31)는 전영래(1980)의 상성, 내성, 중성, 외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외성에 존재하는 물왕벌을 왕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경용(2000:99)은 고토성과 물왕벌 일대를 평지의 궁성, 동고산성을 방어성으로 비정하고, 신라의 왕성도 평지에 궁성이 있고 주변에 방어산성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

다. 물왕벌 지역을 왕궁지로 추정하는 증거로는, 「전주부사」에서 석재와 하천석이 1만개 정도가 있다는 기록(2015년 4월 시굴 조사에서 특별한 증거 찾지 못함; 국립전주박물관, 2017), 풍수지리의 사신(四神)에 상응하는 지형 조건(건지산을 주산으로 남향 위치, 면적 약 10만평)인 점(우백호를 고토성에서 제사공장에 이르는 인공적인 장제로 상징함)을 들고 있다. 그리고 후백제가 빨리 망한 이유를 이 왕궁의 풍수적 결함에서 찾고 있는데, 그 이유로 정남향이 아니었다는 점, 정면에 완산, 남고산, 기린봉 등 높은 산이 있다는 점, 북쪽 주산까지의 흐름이 약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전주부사, 1943:975).

그리고 동고산성의 상성을 궁성으로 추정하는 입장은 전영래(2001)와 조갑종(2003:203), 이경찬(2004:79) 등인데, 견훤성을 산지의 상성, 내성, 중성과 구릉지의 외성으로 구분하고, 승암산과 기린봉 산줄기 아래에 위치하는 동고산성의 상성을 왕궁으로 비정하고 있다(표 5)(그



그림 6. 견훤 궁성의 위치 추정지(Kakaomap)

표 5. 견훤 왕궁의 위치 비정 논의

저자별	왕궁위치	논리 및 특이점
전주부사(1943)	물왕벌	주산(건지산), 사신사상, 좌청룡, 우백호(인공 장제), 남주작, 북현무
장명수(1994)	물왕벌	상성, 내성, 중성, 외성 (외성의 물왕벌)
전영래(2001)	동고산성	발굴내용 근거, 상성(동고산성), 내성, 중성, 외성
성정용(2000)	물왕벌	고토성(왕궁), 동고산성(방어성)
조법종(2003)	동고산성	사령사상, 백호(기린봉), 현무(거북바위), 청룡(용머리), 주작(봉황암?)
김두규·정기호(2004)	전주제일고	풍수지리, 송암산(중조산) - 주산(기린봉), 비보풍수
이경찬(2004)	동고산성	상성(왕궁), 외성(관아, 시가지)
곽장근(2015)	인봉지	사다리골 지역, 후백제의 궁성을 연못으로 만들었을 가능성, 서향
최홍선(2021)	전주교구청	전주교구청-자만동-오목대-경기전
이경찬(2024)	물왕벌, 풍납초 일대	인보성체수도회구역 ~ (구)형무소부지 일대의 고토성지 구역 도성 서벽 추정지 ~ 전주제일고등학교 사이의 풍납초등학교구역

림 6). 전영래(2001)는 ‘성황사증건기(1688년)’의 기록에서 성황사가 북면하고 있다가 묘좌(卯坐, 동방)로 옮겼다는 기록을 중심으로 동고산성의 상성을 견훤성의 궁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주성(全州城)’명 연꽃무늬 솟막새, 관(官)자명 기와 출토와 ‘백공지교자(百工之巧者, 기술자)’를 근거로 927년 경주를 점령할 때 데려온 기술자와 포로를 중심으로 동고산성 주건물의 수축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즉, 동고산성은 견훤 시대 초기 또는 그 이전에 축조되었으나, 927년 경주 점령 이후 데려온 포로와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고, 936년 후백제 멸망과 함께 불탔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전주제일고 일대를 궁성으로 추정하고 있는 김두규·정기호(2004:19)는 풍수지리를 기반으로 기린봉을 주산으로 가정하고 전주제일고를 혈처(穴處)로 비정하여, 이곳을 왕궁지로 비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정찬(2024)은 좀 더 넓게 도성 서벽에서 전주제일고 사이의 풍납초등학교 구역을 왕궁 구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광장근(2015)은 인봉리 일대를 중심으로 마당재-용화사-천부교회-문화촌-전주제일고의 사다리꼴 지역을 왕궁으로 추정하고, 인봉리 방죽을 견훤왕궁을 수장(水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왕궁이 서향으로 배치된 것은 미륵신앙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흥선(2021)은 전주읍성(전라감영) 지역을 통일신라~후백제 그리고 고려와 조선까지의 행정 중심지로 추정하고, 궁성을 배후산성인 동고산성과 연결되고 평지의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천주교 전주교구청-자만동-오목대-경기전 일대로 비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태(2010)는 궁성은 시가지 일원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고산성은 그 궁성의 배후산성으로서의 기능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성정용(2000)은 신라의 왕성과 부여의 궁성을 사례로 들면서 고토성을 평지의 궁성, 동고산성을 방어성으로 추정하였다.

2. 궁성의 입지 조건과 위치 검토

기존에 거론되었던 지역들을 검토해 보면, 먼저 물왕말 지역(현 한옥마을 서해그랑블아파트)은 「전주부사(1943)」의 기록에 많은 석재가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2015년 4월 시굴조사시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최흥선, 2016). 인봉지(완산구 중노송동 470-4번지 일대)는 발굴조사에서 후백제의 궁성벽이 아닌 조선시대 제방으로 밝혀졌으며, 전주 제일고에서도 의미있는 관련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최흥선, 2016:88). 천주교 전주교구청은 배후 산성인 동고산성과 가깝고 평탄지인 시가지와 가깝지만, 상대적으로는 고도가 낮고, 남쪽으로 발리봉에 막혀 있어서, 궁성 입지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물왕말과 천주교 전주교구청은 외성벽에 치우쳐 위치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 외에 오목대는 고위평탄면이어서 시가지 조망이 가능하지만 평탄지 면적이 작다는 한계가 있다.

견훤성이 평지가 아닌 구릉 및 산지에 조성된 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경성과 유사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성내의 고위평탄면에 성을 구축하여 궁성으로 이용하고, 이 궁성을 에워싸는 황궁, 그리고 중요관공서가 포함되는 내성, 전체 시가지 지역을 둘러싸는 외성으로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점은 동고산성의 상성이지만, 이곳은 북향이면서 시가지가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궁성보다는 위급할 때에 활용되는 방어용 성일 가능성이 높다(표 6).

궁성(宮城)의 입지조건으로는 일반인의 거주지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아 시각적으로 위로 보이는 지역이면서, 그 위에 궁성 축조가 가능한 면적의 고위평탄면이 존재하는 지형조건이어야 한다. 궁성은 안전상 도성 내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가지 지역(전주읍성)에서 볼 때 지형상 높게 보이고, 거꾸로 궁성에서 시가지가 잘 조망되는 지점이면서, 고위평탄지가 존재하는

표 6. 기존에 궁성으로 거론되는 지점들의 장단점

거론 지점	장단점
1. 물왕말	2015년 시굴조사시 석재 미발견, 외성벽에 치우침, 고토성 및 종광대 연계
2. 동고산성	북향, 시가지가 잘 보이지 않음, 방어용 성으로 적합
3. 전주제일고	의미있는 유물 미발견, 상대적 고도차 작음
4. 인봉지 일대	조선시대 제방으로 밝혀짐, 원래 인봉천 유역
5. 전주교구청	외성벽에 치우침, 발리봉으로 남쪽 시야가 막힘, 서쪽 시가지 조망 가능
6. 풍납초 일대	외성벽에 치우침, 구릉지이면서도 평탄지 존재

지점으로, 노송동의 전주 천부교회 일대(해발고도 60m, 중노송동 255-1번지, 완산구 인봉 1길 37-11)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지점에는 현재 전주 천부교회(1956년 건립, 1천여명)가 위치하는데, 동쪽은 견훤도성의 동쪽 성벽과 연결되어 있고(거리 약 400m), 동쪽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서쪽의 청강유치원(중노송동 457-1번지) 부근에서 절벽을 형성하여 전주읍성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위로 보이는 지역이고, 남서쪽으로 전주읍성의 시가지 조망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인봉지(현 문화촌)가 해자나 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북쪽으로 조금 낮은 인보성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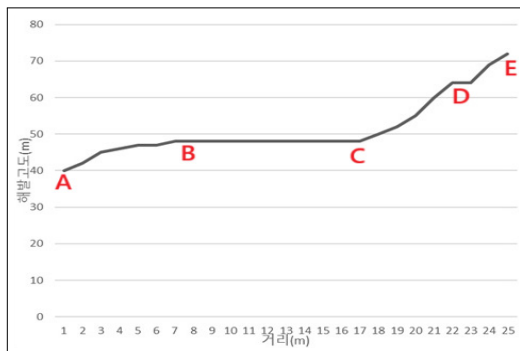


그림 7. 전라감영-천부교회의 해발고도 변화

(A:전주천(완산교), B:전라감영, C:진안사거리(전주고 앞), D:천부교회, E:견훤성 동쪽 성벽)

도원과 노송동 성당 지점에 궁성관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점 등에서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그림 7).

천부교회 일대는 동쪽 산줄기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산줄기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후의 동쪽 산줄기보다는 낮은 지점이지만, 시가지 지역인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기린봉과 승암산이 모두 조망되는 위치이다. 또한 전주천 너머로 완산, 다가산, 서산이 조망되고, 멀리는 고덕산, 모악산, 황방산이 조망되는 위치이다. 천부교회 일대를 중심으로 전주읍성 지역인 남서향을 기본 방향으로 보면, 좌측(남동쪽)으로는 기린봉과 승암산이 위치하고, 우측(북서쪽)에는 반대산(종광대)과 고토성(반촌지역)이 위치하여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배치가 가능하다. 또한 견훤성의 내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난성으로 활용 가능한 동고산성과도 가깝고(서쪽 약 2.5km), 남쪽에는 경계와 정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인봉지(인봉천)가 위치해 있으며, 동, 북, 남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과 서북쪽, 서남쪽이 전주천 방향으로 틈어 있는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그림 8).

전주 천부교회 일대는 해발고도가 약 60m로 시가지 지역보다 높은 지점이어서 시가지 전체의 조망이 가능하며, 시가지에서도 잘 보인다. 그리고 인봉천과 노송천이 내수가 되고, 전주천이 외수가 된다. 이곳에서 남서쪽으



그림 8. 전주 천부교회 일대 중심의 조망 지점들(Google Earth Pro)

로는 전주읍성의 평탄지와 전주천, 남고산(273.7m), 완산(185m), 다가산(71.4m), 서산(121.6m) 그리고 북서쪽의 황방산(216.6m)이 조망된다.

전주 천부교회를 중심으로 1차 외부 성곽은 승암산(동고산성) - 기린봉 - 서낭대 - 종광대(반대산) - 고토성(여단, 반촌지역) - 노송천 및 성곽 서벽 - 오목대 - 승암산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는 기린봉 - 석소산 - 도당산 - 거북바위(검암리) - 서산 - 완산칠봉 - 남고산성 - 승암산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지 변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백제 시대의 견훤도성과 궁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재검토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전주 지역의 시대별 중심 지역은 삼국(백제)시대에는 노송동의 구릉 지역, 통일신라시대에는 평탄지인 전주읍성 지역, 후백제 시대에는 다시 노송동 구릉지역, 고려시대 이후에는 다시 전주읍성 지역으로, 시대에 따라 동쪽에 위치하는 구릉 지역과 서쪽에 위치하는 평탄지를 교체하면서 반경 1km 내의 지역 범위에서 중심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견훤도성은 기린봉과 승암산의 계곡과 노송동의 구릉 지역을 포함하는 산지와 평지를 혼합한 도성으로 추정되며, 산지의 동고산성은 방어용 산성이었고, 노송동의 구릉지역은 평상시의 중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 내부는 동고서저, 남고북저형이며, 하천은 남쪽과 동쪽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흐른다. 동남북은 산지로 경계를 이루고, 서쪽은 노송천을 해자로 이용하는 성벽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주천보다는 노송천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서쪽 성 밖의 평탄지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견훤성 내의 궁성의 위치로는 물양말 일대, 동고산성(상성), 전주 제일고 일대, 전라감영지, 인봉지 일대, 천주교 전주교구청 일대, 풍남초등학교 일대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고위평탄면이 존재하는 전주 천부교회 일대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지점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아 시가지인 전주읍성에서 위로 보이고, 고위평탄지가 존재하며, 궁성에서는 남서방향으로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상과 같이 전주 지역에서의 중심 지역 변화 그리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견훤도성은 노송동 일대의 구릉 지역과 산지인 동고산성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에 반월성으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궁성은 도성 내에서 상대적인 고도가 높고 고위평탄면이 존재하는 전주 천부교회 일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곽장근, 2015, “後百濟 王宮과 都城體制 研究 試論,” 전북사학, 47, 5-34.
- 국립전주박물관, 2016, 「후백제 도성벽 추정지 시굴조사보고서」, 국립전주박물관 학술총서 제 18집.
- 국립전주박물관, 2017, 「전주 풍남동 후백제 도성 추정지 발굴조사 보고서」.
- 김두규·정기호, 2004, “후백제 도읍지 전주의 해석-풍수지리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3), 15-25.
- 김영태, 2010, “전주 동고산성의 성격에 대한 소고: 6차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성곽학회, 17, 72-99.
- 김주성, 2014,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한국고대사연구, 74, 79-105.
- 변동명·배재훈·채희숙·최영주·이옥희·홍창우, 2023,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 광주」,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성정용, 2000, “후백제 도성과 방어체계,” 신호철 등 편, 「후백제와 견훤」, 서울: 서경문화사, 71-102.
- 유병하·나병호, 2015, “궁에도성과 견훤도성,” 신호철 등 편, 「대외관계로 본 후백제」, 서울: 공감, 95-138.
- 유재춘, 2006, “18세기 全州府城 축성기록 ‘築城啓草’ 研究,” 史學研究, 81, 39-85.
- 이경찬, 2004, “전주의 도시형성과 고대·중세의 도시형태,” 전주역사박물관 편, 「지도로 찾아가는 도시의 역사」, 전주: 신아출판사, 45-103.
- 이경찬, 2024, “지도와 유적으로 보는 전주 후백제 왕도공간 구조,” 전북학연구, 13, 103-140.
- 임영진, 2008, “統一新羅武珍都督城의 位置와 規模,”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243-266.

임영진, 2012, “오키나와 구스쿠의 축조 배경 -삼별초 세력의 이주 관련성-”, 호남문화연구, 52, 229-273.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서울: 학연문화사.

전영래, 1980, 「전주 동고산성개괄조사보고, 전북유적조사보고」, 제11호, 전주시립박물관.

전영래, 1992, 「전주 동고산성 건물지 발굴조사 2차 약보고서」, 이리: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전영래, 2001, “후백제와 전주”,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편, 2001,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서울: 도서출판 주류성, 11-50.

조법중, 2003, “후백제 전주의 도성구성에 나타난 사령체계 -전주 거북바위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9, 191-217.

조성욱, 2025, “전주 지역 역사 전개에서 전주천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한국지리학회지, 14(2), 195-209.

최범호, 2016, “『삼국사기』완산주(完山州) 관련 기록의 재검토”, 전북사학, 48, 5-30.

최영주, 2021, “삼국·통일신라시기 광주 중심지 연구”, 역사학연구, 83, 35-72.

최흥선, 2016, “후백제 도성 신자료 소개”, 東垣學術論文集, 17, 76-91.

최흥선, 2021, “고토성으로 본 후백제 전주도성 일고찰”, 강봉룡 등 편, 「후백제와 견훤」, 서울: 서경문화사, 151-183.

허인옥, 2021,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전북학연구, 4, 1-24.

「三國遺事」, 卷第二, 後百濟 甄萱.

「三國史記」卷第五十, 甄萱.

「高麗史節要」, 卷十二/卷三十.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33, 全羅道 全州府 古跡.

「全州城隍祠重建記(전주성황사중건기)」, 1688년.

趙顯命(조현명), 1734, 「全州府城築城錄(전주부성축성록), 築城啟草(축성계초)」.

「完山誌(완산지)」, 광무 9년(190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奎 12271: M/F74-102-10-C), 디지털 장서각(전주시·전주문화원, 2010, 「(完譯) 完山誌」).

「全州府史(전주부사)」, 1943(昭和 18年), 鮮光印刷株式會社(홍성덕·김철배·박현석 역, 2014, 「(국역) 전주부사」,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津田左右吉, 1913, “後百濟疆域考”, 「朝鮮歷史地理」 1(쓰다 소키치 지음, 한세진·박지영·복기대 옮김, 2022, 「조선역사지리」 제1권, 380-416).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전주도엽: 35701066, 35701067, 35701076, 35701077)

전라일보, 2025년 2월 20일자, “전주 종광대 2구역 후백제 성벽 현지보존 결정…후백제 고도 ‘명확’”

Google Earth Pro, <https://earth.google.com/>

Kakaomap, <http://map.kakao.com>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nbuk-do, South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5년 8월 11일
심사완료일: 2025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 2025년 8월 30일